

프란치스칸 삶

우리 삶의 사라센인들에게 가기

프란신 기코, OFS

평화의 사도로 알려진 성 프란치스코는 비록 직접 쓴 것은 아니지만 그의 평화에 대한 생각이 담겨있는 평화 기도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었는지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그는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 증오가 주변에 가득했을 때 그는 어떻게 사랑을 나타냈을까? 그는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용서를 표현했고, 십자군을 죽이던 사라센인들이 점령한 성지를 가서 살아돌아와 그의 이야기가 계속 될까?

프란치스코의 중세 때와 같이 오늘날 사회는 죽이고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잡지들은 분노, 의심, 편협을 표현으로 죽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과 동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하하고, 부끄럽게하고, 고립시키고, 비인간화하면서 쉽게 분노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취소 문화', '고스팅', '가스라이팅'과 같은 새로운 용어와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언어로, 때로는 신체적으로 폭력적이고, 비하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사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에 빠지기 쉽고 회칙에 담긴 우리 프란치스칸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누구든지 신적 요소가 있으며 사랑과 용서로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음을 신뢰하고"

인준받지 않는 수도회칙에서 프란치스코는 수사들이 사라센인들과 다른 비신자들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했고, 그것은 오늘날을 살고 있는 재속 프란치스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믿습니다. "하느님때문에 모든 인가 피조물에게 아랫사람이 되고"

비신자들(또는 적들) 가운데로 가는 수도규칙에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논쟁이나 분쟁해서는 안됩니다. 논쟁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할뿐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생각을 굳힐 뿐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그렇습니다. 악마는 의심과 분노와 오류와 혼돈을 섞고자 우리가 세 부적인 논쟁과 논쟁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악마는

우리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신성한 씨'와 사랑과 용서의 변화시키는 힘을 보는 것을 잊기를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분의 동정심과 사랑을 보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논쟁과 분쟁에 관여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사랑과 상대방과의 관계의 기회를 밀어냅니다. 하느님께서 그 과정에 개입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고 받는 관계 안에서입니다. "연민은 증오와 폭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계의 평화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위해 모든 인간 피조물에게 복종하고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관한 모든 것'임을 알고 깨닫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알아보지 않고 하느님의 공훈과 사랑으로 대등한 형제자매로 대해야 합니다.

평화의 기도 기억하세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 죽음으로서 영생으로 부활하리니" 우리의 기도에 맞게 살고 있나요?

최근 읽고 감명 받은 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치 않고 일곱번씩 일흔번 용서치 않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에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인이 아니다", "복음은 모든이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복음은 이상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이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복음만이 길입니다.
평화와 선.



술탄을 마난 프란치스코 - 조토